

사회

# ‘폐지 줍기’서도 밀린 노인들

## 불황에 영세업자·40~50대 실직자까지 나서 설 땅 잃어

### 파지 가격 반토막 하루 1만원 벌기 힘들어

“젊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트럭으로 온 동네를 휘저으며 박스나 고철을 주워 가는데, 수레를 끄는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하루 1만원도 벌기 힘들지.”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월산 4동에서 만난 최중희(여·72·가명)씨는 굶은 허리를 간신히 굽히며 “10여년 전 생계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고 입을 열었다. 일흔이 넘은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구역을 나눠 동네를 돌아 모은 파지로 생활을 이어온 것.

는 생활이 어려워 2년 전 ‘창피’를 무릅쓰고 수레를 끌기 시작했지만 8시간을 온 동네를 쓸고 다녀도 한 수레를 채우기 힘들다.

박씨는 “트럭을 몰고 몇 개 동을 오가며 싸쓸이하는 젊은이들 탓에 우리 내외가 아침부터 동네를 돌아도 빈 박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길 건너 눈에 띄는 박스 하나를 줍기 위해 무단 횡단하는 위험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주었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날 서부경찰에 입건된 남모(78) 할아버지도 지난날 6월 새벽 6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박모(여·52)씨의 식당에서 박씨가 쌓아놓은 빈병과 빈병박스를 가져갔다가 경찰서 신세를 지게 됐다. 남 할아버지는 일흔 평생 단 한차례의 전과도 없었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부추기는 데는 수요가 줄어 지난해 가을 대비 절반으로 폭락한 파지 가격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1kg당 220원이던 파지는 올해 들어 80~110원으로 반

토막 났다. 가장 큰 횡재인 구리도 1kg당 1만600원에서 8100원대로 폭락했고, 잡철도 420원에서 370원으로 떨어졌다.

이발소 운영이 안돼 파지를 줍기 시작했다던 최순철(71·가명)씨는 올 초부터 모아온 빈 박스들을 쌓아놓고 쉽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근처 몇 곳에서 박스를 주워 팔았는데, 파지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이마저도 힘들어 졌다”며 “파지 가격이 오늘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 마북동에서 만난 최순철씨는 불과 10여개월 만에 반 토막난 파지가격 때문에 한쪽에 빈 박스를 쌓아놓은 채 헐사리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 나원침 (8605) 김장두



## 치위생사가 폐금니 훔쳐 팔아

### 광주북부경찰, 장물업자 등 51명 적발

치과에서 뽑은 금니에서 금조각을 훔쳐 판 치위생사와 장물업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북부경찰은 9일 환자들로부터 뽑은 금니에서 빼 내 보관중인 금을 팔아넘긴 치위생사 윤모(여·25)씨 등 51명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금을 매입한 변모(여·48)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발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10년 2월께부터 지난 3월15일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 등지의 자신들이 근무하는 치과

병원에서 환자들로부터 뽑아 보관중인 금니에 붙은 폐금을 병원장 모르게 훔쳐 판 혐의다.

전직 치위생사인 변씨는 같은 기간 치위생사들에게 총 57회(1614만원 상당)에 걸쳐 폐금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치과병원 총 31개이며 치위생사 등이 병원에 보관중인 금을 임의로 처분한 것인 만큼 절도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미화원 시켜 줄게”

### 친구에게 2200만원 받은 전 고흥 환경미화원 입건

순천경찰은 9일 친구에게 군청 미화원 취임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전직 환경미화원 하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고교 동창인 이모(32)씨에게 고흥군 환경미화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2200만원

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씨는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이씨의 항의에 ‘도의원에 힘을 쓰고 있다’며 처음에 받은 1000만원 외 추가로 1000만원과 알선비 200만원을 따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도 브로커에게 500만원을 주고 고흥군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했다는 하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청탁 과정에 공무원 등이 연계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생활이 절도?

###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두고 모델서 전화·지갑 도둑질

절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4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또 남의 물건을 훔쳐다 경찰에 달미가 잡혔다.

보성경찰은 9일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 등)로 이모(44)씨를 구속했다.

절도 혐의로 1년 6월형을 마치고 출소한 이씨는 지난 5월 6일 보성읍 한 음식점에 들어가 금고에 보관된 체크카드를 훔쳐 유출주점에서 9만7000원을 사용하는 등 최근까지 6회에 걸쳐 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보성읍에서 절도 사건이 빈번하자 폐쇄회로(CC)TV와 카드 사용자 등을 분석해 동종 전과가 있는 이씨를 지난 2일 불잡아 조사를 벌여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지난 6일 새벽 0시 30분께 또 보성읍 한 모텔에 들어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이씨는 훔친 카드를 술집에서 사용하다 현장에 달려온 피해자에게 불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취루탄 닷 루게리병” 현직 경찰관이 소송

현직 경찰관이 1980년대 시위현장에서 노출된 취루탄 가스 때문에 루게리병에 걸렸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여년간 경찰로 근무한 김모씨는 “5년간 대학생들의 시위 현장에서 체중요원으로 사건을 촬영하면서 가스에 노출돼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 목적 못기어 교회 화장실서 성추행

○목적 못기어 교회 화장실서 성추행  
○목적 못기어 교회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추행한 30대가 교회 관계자들에 불잡혀 경찰서행.  
○9일 광주북부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정모(39)씨는 8일 오전 11시10분께 광주시 북구의 한 교회 간이화장실에서 물레를 들고 옆 칸에서 A(18)양이 용무를 보고 있는 사이 손을 뻗어 성추행했다는 것.  
○간간 등 범죄경력에 있는 정씨는 “10여년 동안 성적도착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 바람에 약속을 챙겨먹지 못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을 벌였다”며 잘못을 시인.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주유기 불법 기관 설치 4억 부당이익 책거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기에 불법 기관을 설치해 주유기에 표시된 금액보다 적게 기름을 넣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김모(53·프로그래머)씨를 구속하고 장모(44)씨 등 주유업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완주 지역 5개 주유소에 불법 기관을 설치해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귀금속 600만원 1분만에 ‘뚝뚝’

### 어제 새벽 치평동 금은방 2인조 강도

새벽 시간대 금은방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A(여·39)씨의 금은방에 복면을 한 2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반지 등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 9점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 1분 만에 귀금속을 훔

쳐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고, 보안업체는 4분 뒤 현장에도 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로 추정되는 이들은 오토바이 헬멧과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둔기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로 돈을 훔치는 등 피해

품의 성격으로 봐 초범의 소행으로 생각되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인근 도로 CCTV 등을 분석하는 한편, 동종 전과자들을 상대로 수사중이다.

인터넷에서 만나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이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

트레이러 대형 1,2종 보통 2종 소형 (오토바이)

문자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깨끗한 환경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공원같이 아늑한 학원전경”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